

현 거주주택에 대한 노인들의 평가

이 지 숙(군산대학교 전임강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및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노인들은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노인기를 보내고 싶어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확률이 커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 주택의 계획이나 시설, 환경 등은 신축 시 노인들의 거주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기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유형에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각 실의 계획 및 시설, 환경 등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인근환경과 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조사지역을 구분하여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 및 5개의 노인복지회관 중 면접조사를 허락한 4개 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공간, 공동공간, 작업공간, 생리위생공간으로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과 거실, 부엌과 욕실을 대상으로, 2002년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면접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10.0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단순 통계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초졸이상 71.2%, 전 직업은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일반사무직이 40.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75.1%로 가장 많았으며, 주된 수입원은 자녀 62.8%로 나타나서 경제적 측면의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32.7%가 현 주택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였다. 현 주택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과 거실의 규모, 부엌과 욕실의 노후화된 시설이고, 이를 주거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주 노인들은 방·거실·욕실에서 규모를, 부엌의 노후화된 시설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고, 단독주택 거주노인들은 방의 소음과 거실·부엌·욕실의 노후화된 시설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노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특히 방이나 거실에서 보내고, 많은 물품들을 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방 규모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세대 동거가구인 경우 노인들은 아파트 평면에서 2번째나 3번째로 큰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공간은 대개 중소형 아파트에서 학생용 책상과 침대가 들어가면 여유가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노인의 거주가 예상되거나 향후 노인을 위한 방을 계획할 때는 그들의 소장물품과 오랜 시간 주택 안에서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야 한다. 거실은 1인 이상의 가구원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므로 수용인원의 변화와 행위내용에 따라 공간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평면계획 초기에 가구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조절가능한 가변형 벽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파트의 욕실은 대개 필요시설과 최소한의 여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작이 둔해지는 노인들에게 불안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욕실에 보다 넓은 여유공간이 필요하다. 또 노화단계에 따라 변경 혹은 교체가 가능한 부엌설비나 욕실설비에 대한 배려가 주택건축의 초기단계에서 구조 및 시공계획에 고려되어야 한다.